

배경수 신임회장 취임 한 달 만에 성과 ‘눈길’

- 신규 연구사업 유치 및 경영안정자금 연기
- 벌꿀 드럼통 개선사업 건의 등 사업 추진력 높아
- 양봉 임의자조금 거출 기반 마련에 앞장



배경수 회장(꽃다발 왼쪽)이 전기현 전 회장과 이번 16대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한국양봉협회 배경수 회장의 사업 추진력이 화제다.

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연설 및 당선 인사에서 공약사항을 꼭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배경수 회장은 취임 후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경영안정자금 연기, 신규 연구사업 착수, 양봉임의자조금 사업 등을 진행했다.

특히 양봉자조금 사업의 경우 배 회장은 “거창한 계획이나 큰 금액을 거출하는 것보다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적은 금액이라도 거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양봉농가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조금 거출을 실시, 자조금 거출 품을 조성했다.

배 회장은 또 꿀벌 사육에 있어 벌꿀 및 양봉 산물 생산 외에도 화분매개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 연구사업 자금(연간 8천만원)을 유치, 새로 온 이상철 연구소장과 농진청과 함께 '꿀벌의 공익적 가치 연구 사업'에 착수 했다.

또한 벌꿀 수출과 벌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꿀 드럼통 현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벌꿀 용기(드럼통) 현대화/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드럼통 인입노즐과 뚜껑을

스테인레스로 제작해 부식된 녹물이 벌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.

더욱이 올해 기한인 경영안정자금 상환을 연기해 많은 양봉농가들의 경영자금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.

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취임한 배 회장의 사업추진력으로 양봉인들이 하나로뭉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봉협회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. **양봉**

양봉협회 추진사업

양봉협회 신규 연구사업 확정/추진

□ 꿀벌화분매개의 공익적 가치 연구 사업 (연간 연구비 8천만원)

● 분야별 연구사업

- 양봉산업의 다원적 평가기법 연구
- 꿀벌의 생태계 및 정서적 영향 연구
- 꿀벌의 화분매개에 관한 연구

□ 양봉농가 경영 안정자금

● 2004년도에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을 06년도에 1차 상환기간을 연장 했으며, 추가로 2차 상환기간을 연장

- 연장내용 : 3년간 상환기간 연장
- 연장 조건 : 원금 20% 상환 농가 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(3년간 분할상환 가능)

□ 양봉산물의 다원화 및 고품질 브랜드 개발

- 벌꿀 순도 분석(천연꿀과 사양꿀구분)
- 수입꿀 구분법
- 고품질의 브랜드꿀 개발

□ 드럼통 개선 사업

● 사업목적

- 벌꿀의 안전성 확보 및 벌꿀용기 (드럼통) 현대화로 품질고급화

● 사업추진 계획

- 사업기간 : 2010년 ~ 2015년(5년)
- 지원조건 : 벌꿀용기(드럼통) 지원 (국비 80%, 지방비 20%)
- 벌꿀용기(드럼통) 제작 : 전문 제작업소 위탁
- 보급계획 수립 : 양봉협회 (양봉농가), 시·군 단위별

양봉협회 주진사업

최우선 추진과제

- 자조금 사업 추진
 - 자조금 추진 위원회 구성
-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 준비
 -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(3월중)
- 벌꿀 규격기준 신설/법제
 - (벌꿀의 정의)
- 우수여왕벌 개량/보급사업 추진
 - 시험/개량연구사업자 선정
- 꿀벌기능성 전용사료 개발
-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 직계 개편 추진
 - 별도의 양봉과 설립
- 밀원수 식재사업 추진
 -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
(강 주변 밀원수 식재)
 - 국유림대부(임대)/사업/병행시행
- 연구사업 추진
 - 여왕벌 우수계통 보존/연구
 - 꿀벌 바이러스 및 노제마 약제개발
 - 꿀벌 응애 약제개발
- 2009년도 밀원수 식재 사업 추진
 - 1억 5천만원
(국비 80%, 지방비 20%)
 - 시·도 양봉농가 홍보
(사업계획서 제출)
- 잡화벌꿀 품질관리 개선